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타임피스,

리베르소 원 프레셔스 컬러

리베르소의 아르데코 스타일에 여성스러운 매력을 더한 타임피스

- 예거 르쿨트르의 탁월한 장식 공예와 주얼리 전문 기술을 입증하는 걸작
- 인하우스 칼리버 846의 정교한 기술력과 미적 아름다움의 진귀한 결합

아르데코 디자인의 정수로 일컬어지는 리베르소는 1931년 탄생 이후부터 변함없이 현대적인 스타일을 유지해 왔습니다. 시계 디자인은 폴로 경기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초창기부터 기술적 정교함을 지닌 남성과 여성 시계를 만든다는 그랑 메종의 철학에 따라 출시 1주년이 되기 전 이미 여성 시계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리베르소는 수십 년 동안 사회적 변화와 취향의 변화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대담한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제작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잠재력을 실현시켰습니다. 2023년, 예거 르쿨트르는 리베르소의 여성스러운 측면을 강조한 새로운 타임피스를 출시합니다. 두 가지 매력적인 컬러의 리베르소 원 프레셔스 컬러는 아르데코 스타일을 기념하는 풍부한 디테일을 장식한 케이스를 갖추었습니다.

아르데코 특유의 기하학적 패턴

1920년대 중반에 등장한 아르데코 운동은 1925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현대산업예술전(Exposition Internationale des Arts Décoratifs)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실제로 명칭이 정립된 시기는 수십 년 후입니다). 아르데코는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엄청난 변화를 불러온 사회 및 문화적 격변기를 거치며 점차 성장해 나갔습니다. 깔끔하고 강렬한 선의 강조를 통해 생동감 넘치면서도 우아함을 표현한 아르데코 스타일은 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든 자유와 hedonism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표면 장식은 평행선과 직선형 모티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웨브론과 지그재그 형태를 연출한 후, 컬러 블록과



화사한 메탈 디테일을 추가해 오늘날까지도 바라보는 이들을 매료시키는 역동적인 패턴을 완성하였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숙련된 장인들은 리베르소 원 프레셔스 컬러에 그들만의 탁월한 디자인 언어를 새겨 넣었습니다. 케이스백 전체에 매혹적인 패턴을 빼곡히 채우고 다이얼 측면 주변을 감싸는 듯한 연출로 다이얼을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리베르소 원 프레셔스 컬러 앞면 다이얼의 화이트 마더오브펠 다이얼은 에나멜 처리된 프레임의 선명한 컬러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가드룬 및 러그와 풍부한 대비를 이루며 우아한 품격을 이끌어냅니다. 다이얼에는 각 모서리에 장식된 폭이 좁은 골드 브래킷을 비롯해 리베르소 원 주얼리 모델을 상징하는 애플리케 숫자와 도피네 핸즈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시계는 케이스 장식과 잘 어울리는 컬러의 유광 악어 가죽 스트랩이 매치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수준의 장식 공예

회전 케이스를 돌리는 순간, 리베르소 원 프레셔스 컬러는 하이 주얼리 작품으로 바뀝니다. 핑크 골드 배경에 블루와 블랙 컬러가, 또는 화이트 골드 배경에 다양한 색채의 그린 컬러가 어우러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미니어처 페인팅 *그랑 푸* 에나멜 패턴이 마치 실제로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리베르소 원 프레셔스 컬러는 정교한 기술력과 다양한 수공예 기술을 필요로 하는 난이도 높은 작업이며, 이는 에나멜링을 시작으로 합니다. 먼저 화이트 골드 또는 핑크 골드의 기본 소재를 아교나 투명 에나멜을 사용해 밀폐한 후 가열합니다. 그다음에 멀티컬러 디자인을 채색하기 위하여 깨끗한 다이얼 표면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랑 메종의 에나멜 장인은 불투명 화이트 에나멜을 바르고 건조시킨 후 가열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제 정교한 도구로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시계 케이스의 평평한 표면에 기하학적 디자인을 구성하는 선들을 핸드 드로잉합니다. 이 과정에서 케이스 표면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측면까지 디자인을 장식합니다. 이러한 공정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만 채색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에나멜 장인들은 끝이 얇고 뾰족한 브러시를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다양한 컬러 블록을 페인팅합니다. 각각의 컬러가 의도한 그대로 그윽하고 깊이 있는 색채가 될 때까지 한 겹을 바르고 가열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합니다. 가열을 마치고 나면 투명한 아교를 여러 번 덧바릅니다. 제네바 테크닉으로 알려진 최종 코팅 과정은 컬러를 선명하게 유지하고 깊이를 더해줍니다. 코팅 후 견고해진 표면은 유리처럼 매끈하게 빛나는 광채를 연출하기 위해 핸드 폴리싱 처리합니다.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컬러의 오목한 케이스 측면과 평평한 케이스백을 동시에 에나멜 처리하는 작업은 매우 까다로운 공정인데, 이는 가열하는 과정에서 접착력을 유지하기 위해 각기 다른 에나멜 농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팔레트의 물감을 사용하는 것처럼 에나멜 장인들은 금속 산화물로 색을 낸 각종 안료를 혼합시켜 정확히 원하는 블루 또는 그린 컬러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랑 퓨 에나멜의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800°C에서 가열된 일부 안료의 컬러는 예상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컬러의 케이스는 최대 15 번의 가열 과정 및 200°C에서 여러 차례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하며, 모든 기술을 마스터하기까지 수년간 경험을 쌓아야만 합니다. 예거 르쿨트르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에나멜 장인 5 명은 모두 제네바 테크닉을 철저히 마스터했습니다.

에나멜 공정을 마친 리베르소 케이스는 다이아몬드가 완벽하게 세팅되도록 켄 세팅 장인들에게 전달됩니다. 장인들은 그레인 세팅 테크닉을 사용하여 평평한 메탈 표면에 초소형 골드 클로(claw)를 들어올려 켄스톤을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완성한 에나멜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에나멜을 입힌 부분과 켄스톤을 세팅한 구역을 구분하는 직선 라인을 침범해서도 안 됩니다. 80 시간에 걸친 에나멜 작업을 마친 후에는 45 시간 동안 공들여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컬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합니다. 장식 공예 기술을 전담하는 아틀리에가 있다는 사실은 그랑 메종만의 특별한 장점입니다. 다양한 기술을 마스터한 장인들은 매뉴팩처의 지붕 아래에서 창의적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컬러의 케이스 내부에는 그랑 메종의 탁월한 위치메이킹 우수성을 입증하는 무브먼트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에서 개발과 제작의 모든 과정을 거친 핸드 와인딩 칼리버 846 은 예거 르쿨트르의 초기 철학에 따라 직사각형 케이스의 형태에 맞춰 디자인되었습니다.



기능과 디자인, 최고급 워치메이킹을 결합하여 여성적 감성으로 대담하게 재해석한 매혹적인 주얼리이자 시간을 알려주는 리베르소는 예거 르쿨트르의 탁월한 장식 공예와 주얼리 전문 기술을 잘 보여줍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원 프레스스 컬러

케이스: 핑크 골드 또는 화이트 골드 750/1000(18 캐럿)

시계 사이즈: 40 x 20mm, 두께: 9.09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46

파워 리저브: 38 시간

기능: 시간 및 분

다이얼: 마더오브펄

케이스백: 그랑 퓨 에나멜과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277 개 다이아몬드, 약 1.6 캐럿

스트랩: 핑크 골드 - 블루 앨리게이터, 화이트 골드 - 그린 앨리게이터

제품 번호: 핑크 골드 Q3292432, 화이트 골드 Q3293432 - 리미티드 프로덕션

황금 비율 소개

예거 르쿨트르는 아르데코 스타일이 한창인 1931 년, 황금비율에 기반하여 리베르소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미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비율로 알려진 황금비율은 그리스 글자 ϕ (파이)로 표현되거나 1.618 로 정의되는 신비로운 숫자입니다.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예거 르쿨트르의 리베르소는 황금비율을 잘 보여주는 타임피스입니다. 이후 9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리베르소의 케이스는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었지만, 오리지널 디자인의 비율만은 컬렉션을 정의하는 상징으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리베르소 = 황금비율'이라는 공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